

- 주요 뉴스: 미국 국채금리,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 지속 경기침체 우려 확대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증시는 잭슨홀 미팅 참석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
 - ECB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 EU, 에너지 가격 억제를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 약보합[-0.01%],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파월 의장의 때파적 발언 영향 계속되며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약세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전망 반영되며 약보합 마감
유로화가치는 0.3% 상승, 엔화는 0.8%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 등이 배경
독일은 최근 ECB 인사들의 금리인상 발언 부각되며 1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45.5원, -4.9원) 0.3% 하락, 한국 CDS 보합

		8/29일	8/26일	전일대비			8/29일	8/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30.6	4,057.7	-0.67%	국채 금리 10y	미국	3.10%	3.04%	6bp
	유럽	422.65	426.09	-0.81%		독일	1.50%	1.39%	11bp
	중국	3,240.7	3,236.2	0.14%	CDS 5y	한국	35bp	35bp	0bp
	일본	27,879	28,641	-2.66%		중국	71bp	70bp	1bp
	한국	2,426.9	2,481.0	-2.18%	위험 지표	EMBI+	-	421	-
환율	달러지수	108.79	108.80	-0.01%		VIX	26.21	25.56	2.54%
	유로화	0.9997	0.9966	0.31%		WTI유	97.01	93.06	4.24%
	엔화	138.72	137.64	-0.78%	원자재	구리	361.2	369.7	-2.30%
	위안화	6.9088	6.8717	-0.54%		금	1,737.1	1,738.1	-0.06%
	원화	1,350.4	1,331.3	-1.4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국채금리,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 지속. 경기침체 우려 확대**
 - 8/29일 미국 주요 국채금리는 지난 주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금리인상 지속 의지를 밝힌 영향으로 상승(2Y 3.42% +3bp, 10Y 3.10% +6bp). 특히 2년물 금리는 '07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 이는 금리 전망의 전반적 상향 조정이 반영된 결과. 선물시장에 따르면, 9월 FOMC에서의 0.75%p 금리인상 확률이 65%로 1개월 전에 비해 28%p 상승. CME FedWatch Tool의 경우 정책금리가 11월 3.75~4.00%까지 오른 후, 내년 상반기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위험을 경고. UBP의 Carlos Casanova는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역전 현상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
 - 아울러 투자자들은 주요 국채금리 전망의 상향 조정이 자본조달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여 기업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Morgan Stanley와 BofA 등도 지금까지 기업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향후에는 기업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증시는 잭슨홀 미팅 참석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
 - 카슈카리 총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언급.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 의지를 시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
- **ECB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과정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줄이려면 소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효과적이라고 언급. 과도하게 빠르거나 늦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목표 금리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
 - 시장에서는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발언이 지난 주말 큰 폭의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ECB 인사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평가

■ 독일 경제장관, 가스 가격 하락을 예상. 비축 속도는 양호한 수준

- 하벡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가스 가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 최근 가스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가 유입된 영향도 크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진정되면 가격 역시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 가스 비축 속도는 예상을 넘어섰으나 겨울을 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EU, 에너지 가격 억제를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의 분리 등 전력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방침. 현재는 가스 요금이 전기 요금을 좌우하고 있다고 부연
- 또한 여타 고위 관계자들은 전기가격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가 더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발언. 이 외에 단기적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총리, 금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20년 수준을 상회

- 리커창 총리는 정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단호하게 경제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출범시켰다고 주장. 향후에도 합리적 범위 안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물가안정 및 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

■ 골드만 삭스, 원자재 매수 권고. 최근 경기침체 우려는 과도한 수준

- Sabine Schels 애널리스트 등은 유럽을 제외할 경우 향후 12개월 이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 원유 선물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 부족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진입 시기라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2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12.9, 7월(-22.6), 예상치(-20.2)

■ 주요 경제 이벤트(8/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 미국 7월 JOLTS 구인건수
- 미국 6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및 FHFA 주택가격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차례 - 블룸버그

(Powell Must Reinforce His Words With Actions)

-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으며, 통화긴축을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여 인플레이션 목표(2%)를 달성하겠다고 강조. 이는 시장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
- 이러한 발언에 맞춰 연준은 그 동안 제시한 실업률 및 단기금리 전망을 상향하는 편이 합리적.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밝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 판단 오류 및 정책 제약에 따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중국 경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 - Financial Times

(China's property-driven growth model is broken)

- 오랫동안 중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 하지만 그 동안 자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 이에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
-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투자 비중을 낮추고 민간 소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임금 인상 및 금융시장의 적절한 규제 등도 필요. 아울러 당국의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전망

■ 세계화, 정치적 갈등 및 경제자립주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Financial Times

(The enemies of globalisation are circling)

■ 미국 연준, 글로벌 고물가 정점 통과 가능성에도 금리인상 지속 예상 - 블룸버그

(‘Inflation Fever’ Is Finally Breaking — But Central Banks Won’t Stop Hiking Rates)

■ 미국의 금리인상, 중소기업의 채무상환을 어렵게 할 우려 - Financial Times

(Interest rates: Fed hikes set to hit smaller companies harder)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